

## 미원주민선교주일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본 설교 자료는 목회자 및 지도자들의 미원주민선교주일 예배 준비를 돕기 위해, 누가복음 24:36b-48 및 데살로니가전서 1:2-3을 기초로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라는 주제로 작성되었습니다. 자료 꾸러미의 다른 자료들과 함께 각 교회 및 예배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세요.

**초** 근 펜실베이니아주 의사당 건물 계단에서 열린 집회에서 펜실베이니아의 레나페족 일원들은 입법부에 자신들을 미원주민 부족으로 공식 인정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여성은 자신의 영성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지하 방에서 홀로 신성한 의식을 치른 친척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친척은 부활의 아침, 다락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부활의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방문을 잠근 채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물으십니다.

늘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여 빵을 떼고 평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쓴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리십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또는 비유적으로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어진 땅은 수천 년 동안 (설교자는 여기에 그 지역 부족을 추가하세요) 한 부족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미원주민에게서 빼앗은 땅 위에 노예가 된 아프리카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폭력과 인종차별의 유산은 이 나라의 역사에 심지어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함께 엮여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제자들처럼 세상으로부터 숨어 있기만 한다면, 어떻게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하는 체제를 무너뜨리고 정의로 사랑과 평화의 터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미원주민 교회 가족들과 다른 이들이 조롱이나 차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자유로이 실천하게 독려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거둬들이는 관계 가운데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미원주민선교주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동펜실베이니아연회 미원주민사역

위원회(CoNAM)와 대뉴저지연회의 미원주민사역위원회는 연회 경계를 넘어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오래된 미원주민 감리교회와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뉴저지주 브리지튼의 성요한연합감리교회는 난티코크 레니-레나프(Nanticoke Leni-Lenape)의 많은 부족민들이 소속된 곳입니다. 두 연회는 재정 지원과 영적 지원을 포함한 자원을 결합하여 함께 힘을 모았으며, 이 파트너십은 성요한교회가 증오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따르지만, 우리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과 사랑, 희망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더 많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통과 의식이 달라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이번 미원주민선교주일을 계기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배울 때, 우리는 부활의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